

# 중소·벤처 “개보법 2차 개정안 과징금 상향 철회돼야”

인터넷·게임·쇼핑 등 11개 단체  
개보법 개정안 대한 입장문서 요구  
위반시 매출액 3% 과징금 부과땐  
기업경영·관련 산업 발목 등 주장

인터넷·게임·쇼핑 등 중소·벤처업계  
등으로 구성된 11개 단체들은 개인정보  
보호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‘개인정보  
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의 전체 매출  
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 
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. 또 과도한  
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, 사법절차  
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 
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 
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벤처기업협회·중소기업중앙회·코리  
아스타트업포럼·한국게임산업협회·한

국경영자총협회·한국디지털광고협회·  
한국여성벤처협회·한국온라인쇼핑협  
회·한국인터넷기업협회·한국통신사업  
자연합회·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 
단체는 10일 ‘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
에 대한 입장문’을 통해 개보법 2차 개  
정안의 주요 조항 중 문제가 되는 조항  
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.

우선,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  
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‘전체’ 매출액 기  
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, 이는 ‘위반행  
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’라  
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  
며 철회를 요구했다.

11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“개인정보  
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유럽연  
합(EU)의 GDPR(일반개인정보보호  
법) 등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지

만,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  
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 내 경쟁  
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 
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임식당한 상황에  
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 
가깝다”고 주장했다. 이어 “중소·벤처기  
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~3%  
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  
향될 경우,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 
사업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·벤처  
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고, 개인정  
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  
용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그동안 과징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  
공자에게만 ‘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’의  
3% 이하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, 개보법  
2차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인정보처리  
자로 확대하고,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

체 매출액의 3%로 상향 조정했다.

이들 단체는 “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 
것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  
친다는 ‘실증적 연구’ 결과가 전혀 없는  
상태에서 무조건 과징금 부과기준 상  
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 
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 
도움이 되지 않는다”며 “전체 매출액 기  
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‘관  
련’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”고 주  
장했다.

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  
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 
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 분쟁  
조정이란,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  
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  
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이  
다. 하지만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

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  
정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, 자료 조사,  
열람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  
을 부과했는데, 이는 ‘분쟁조정’ 취지를  
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 규정으로 반드  
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
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 
강조했다. 입장문에서 “정보주체 권리  
를 다양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  
하지만,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  
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 재산권과 영  
업의 자유를 제한하고, 설비 및 비용 투  
입으로 인해 중소·벤처기업에 막대한  
부담으로 작용하며, 제한 없는 개인정  
보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유  
발할 위험이 있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/체윤정 AI전문기자 echo@metroseoul.co.kr

## 1회 충전으로 426km 주행… ‘럭셔리 전기차’

### 벤츠, 순수 전기차 ‘더 뉴 EQA’

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장착  
5990만원… 다음달 공식 출시

메르세데스-벤츠가 컴팩트 전기차도  
내놨다.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  
로 미래 모빌리티를 엿볼 수 있게 했다.

벤츠코리아는 10일 ‘2021 서울 스마  
트 모빌리티 엑스포’에서 더 뉴 EQA와  
MBUX 하이퍼스크린을 공개했다.

더 뉴 EQA는 벤츠의 새로운 컴팩트  
전기차 모델이다. 국내에는 EQC에 이  
어 두 번째로 출시되며, 효율적인 전기  
구동 시스템과 도심형 전기차에 걸맞은  
다양한 첨단 및 편의 사양을 더 했다.

리튬 이온 배터리는 66.5kWh 용량  
으로, 1회 완충 시 WLTP 기준으로는  
426km를 달릴 수 있다. 차량 하부에 더  
블 데카 형식으로 탑재되며, 최고 출력



메르세데스-벤츠 코리아가 10일 서울 마포구 증산로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‘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’에 참가해 프리미엄 컴팩트 순수 전기차 ‘더 뉴 EQA’를 선보이고 있다. /손진영기자 son@

140kW 전기 모터가 앞 차축에 장착된  
다. 배터리 하부에는 냉각판을 장착하  
는 등 지능형 열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  
을 높였다. 충전은 최대 100kW 급속 충  
전이 가능하다.

컴팩트 모델 처음으로 드라이빙 어  
시스턴스 패키지도 장착됐다. ▲액티브  
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▲액티  
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 ▲액티브 사각  
지대 어시스트 등이 포함됐다.

가격은 5990만원으로 오는 7월 공식  
출시할 예정이다. 13일부터 9월 30일까  
지 반포 세빛섬에서 ‘메르세데스-EQ  
카페’를 열고 EQA를 직접 볼 수 있는  
기회를 제공한다.

벤츠 코리아 마크 레인 제품 & 마케  
팅 부문 총괄 부사장은 “메르세데스-E  
Q의 럭셔리 전기 컴팩트 SUV인 더 뉴  
EQA는 효율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  
성능을 선사하는 동시에 최첨단 디지털  
기능을 갖춘 지능형 차량으로 도심 전  
기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 
모델”이라며 “더 뉴 EQA와 함께 공개  
되는 메르세데스-EQ의 차량 인포테인  
먼트 시스템인 MBUX 하이퍼스크린을  
통해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 
경험해 보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특히 이날 처음 공개된 MBUX 하이  
퍼 스크린은 미래 모빌리티를 엿볼 수  
있는 기술이다. 대형 곡선 스크린에 학  
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(AI)을 탑재  
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담았  
다. 연말 출시될 더 뉴 EQS부터 선보  
일 예정이다. /김재웅 기자 juk@

## 세단시장 뒤흔드는 ‘파사트 GT’… 품질·가격 ‘매력’

폭스바겐, 최첨단 기술로 무장  
‘제타’도 수입 컴팩트 세단서 돌풍

폭스바겐코리아가 뉴 스마트 비즈니  
스 세단 ‘파사트 GT’와 베스트셀링 컴  
팩트 세단 ‘제타’로 국내 세단 시장을 공략  
하고 있다. 파사트 GT와 제타는 각각 연  
식 변경을 거치면서 최첨단 기술 및 다  
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해 매력적인 상품  
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.

10일 업계에 따르면 신형 파사트 GT  
는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올해 들어 약  
5개월 간 826대가 판매되며 스테디셀러  
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, 신형  
제타는 같은기간 1988대가 판매되며 2  
~3000만원 대 수입 컴팩트 세단 중 가  
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.

폭스바겐의 최첨단 기술들을 가장 먼저  
적용시킨 신형 파사트 GT는 현재  
3000만원 대 중 후반대의 세단 모델 중  
에서 진일보한 최신 기술력과 편의 사



폭스바겐 뉴 스마트 비즈니스 세단 신형 파사트 GT.

양을 가장 풍부하게 경험 할 수 있는 모  
델이다.

신형 파사트 GT에는 브랜드 최초,  
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통합 주행보조  
(ADAS) 시스템인 ‘IQ.드라이브’가 탑  
재된다. IQ.드라이브의 핵심 기술 중  
하나인 ‘트래블 어시스트’를 통해 출발  
부터 시속210km에 이르는 주행 속도  
구간에서 차량의 전방 카메라, 레이더

센서 및 초음파 센서를 모두 활용해 어  
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레인 어시스트,  
사이드 어시스트 등의 주행 보조 시스  
템을 통합 운영한다.

또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지능형 라이  
팅 시스템 ‘IQ. 라이트-LED 매트릭스  
헤드라이트’를 적용해 운전자의 안전성  
과 편의성을 높였다. 여기에 브랜드 최  
초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‘MIB

3’를 적용, 무선 앱 커넥트는 물론 스마  
트폰 무선 충전 기능, 음성 인식 차량컨  
트를 등이 가능해져 디지털 편의 사양을  
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.

신형 파사트 GT는 2.0 TDI 엔진에 7  
단 DSG가 조합돼 최고출력 190마력  
(3500~4000rpm)과 최대토크 40.8kg.  
m의 다이내믹한 성능을 발휘한다. 탄  
탄하면서 묵직한 느낌의 정속 주행과는  
다르게 1900~3300rpm의 넓은 실용 영  
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. 폭스바겐  
TDI 엔진 특유의 높은 연료효율성도 높  
치지 않았다. 신형 파사트GT 2.0 TDI  
모델의 복합연비는 14.9km/L, 2.0 TDI  
4모션의 복합연비는 14km/L이다.

신형 파사트 GT가 최첨단 기술로 중  
무장한다면, 올해 초 연식변경된 신형  
제타는 한국 고객들의 선호 편의 사양  
이 대거 탑재된 최강의 가성비 모델이  
다. /양성운 기자 ysw@

YouTube  
유튜브<메트로신문> 동영상 제공

신세계아이앤씨  
‘리테일테크’ 중동 수출

신세계아이앤씨가 리테일테  
크로 중동 지역 첫 수출 케거를  
이뤘다.

신세계아이앤씨는 사우디아  
라비아 뷰티&라이프스타일 기  
업 ‘GHB’에 스파로스 클라우드  
POS가 탑재된 스파로스 스마트  
밴딩머신을 납품한다.

GHB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 
규모의 프리미엄 뷰티&라이프  
스타일 기업으로 뷰티체인스토  
어 ‘화이츠’와 드러그스토어 ‘쿠  
노즈(Kunooz)’ 등 200여개 이상  
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중동  
지역에서 뷰티 브랜드 상품의 유  
통, 투자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 
전개하고 있다.

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해 독  
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‘유로샵  
2020(EuroShop 2020)’에서 사  
우디아라비아 GHB에 자사의 리  
테일테크를 통한 비대면 유통서  
비스를 제안했다. 코로나19 확산  
으로 유통 시장에 비대면 서비스  
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폭발적으  
로 증가했던 GHB는 매장 운영  
효율성은 물론이고, 고객 관점에  
서 차별화된 소비 경험과 편의성  
을 제공하는 신세계아이앤씨의  
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신세계아이앤씨는 스파로스  
클라우드POS를 통해 현지 소비  
자가 원하는 키오스크 터치가 필  
요 없는 완전 비대면 판매 방식을  
개발하고, 모바일페이, 신용카드  
등 현지 결제수단을 연동 개발했  
다.

이번에 수출하는 스파로스 클  
라우드POS와 스파로스 스마트  
밴딩머신은 뷰티체인스토어 화  
이츠 15개점에 우선 설치된다.  
현재 신세계아이앤씨는 GHB와  
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 중  
동 지역에 자사의 리테일테크 통  
합 브랜드 ‘스파로스(Spharos)’  
솔루션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 
중이다.

/체윤정 AI전문기자